

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·중동 금융협력 방안

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·유라시아실
아중동팀 연구위원
khlee@kiep.go.kr

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·유라시아실
아중동팀 연구원
shson@kiep.go.kr

박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·유라시아실
아중동팀 연구원
jepark@kiep.go.kr

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~12년 ‘아랍의 봄’을 거치면서 중동지역의 산업 수요 및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.
 - 최근 GCC(Gulf Cooperation Council)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비석유부문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ICT, 금융, 관광, MICE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및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당해 업종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, 민간부문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음.
 -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이외에 보건의료시설, 학교, 주택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.

- 이러한 산업 수요 및 정책의 변화는 중동 산유국의 재정 및 금융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중동 산유국들은 고유가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GDP 대비 재정 흑자규모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.
 - 석유 수출에 기반한 재정 수입만으로는 증가하는 프로젝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.
 - 이에 따라 산유국 정부들은 시공사에 금융 주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발전·담수화 사업의 경우 민간 독립사업자의 직접 투자를 선호하기도 함.
 - 또한 중동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직접투자 진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함

-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가 극복되어야 함.
 - 1970~80년대에 효과적이었던 EPC(Engineering, Procurement and Construction) 계약 기반의 중동 진출 방식은 최근 국내 기업간의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가 나타나는 배경이 되고 있음. 따라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개발이나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 최근 프로젝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, 민간부문의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음.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스(PF)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.

-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국내 기업들이 중동 진출방식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, 그리고 국내외 개발금융기관들 사이에 어떠한 금융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함.
 -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들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능력 강화를 위한 한·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함.
 - 본 연구에서의 금융협력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그 대상으로 함.

- 본 연구는 이러한 한·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.
 -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임.
 - 또한 이는 중동 국가들의 중소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가. 산업 및 금융 환경의 주요 변화

- GCC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민간부문과 비석유부문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장기 국가 비전 아래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함.
 - 중동 산유국은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비전 및 정책을 통해 산업다각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음.
 - 또한 고용 창출을 위한 민간부문 자국민 우선고용 정책,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-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.
 -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민관협력사업(PPP: Public Private Partnership)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방식도 증가하는 추세임.

- GCC 지역의 은행들은 과거 유럽 및 미국계 대형 은행이 주도했던 중동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금융주간사(MLA: Mandated Lead Arranger)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.
 - 중동 내 MLA 대출 자금 감소는 주요 대주기관이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 및 경기침체에 기인함.
 - 반면 중동의 은행들은 2000년대 이후 고유가 기조에 따른 역내 유동성 증가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.
 - MLA 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중동은행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유럽계 은행의 지분이 높거나 GCC 국부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이 주를 이루고 있음.

- 최근 국부펀드는 수익 추구 이외에 경제 개발 및 산업 발전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역내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있음.
 - 고용 증대, 기술 및 지식기반기업 육성, 산업 다각화 등을 위해 투자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.
 - 이를 위해 사모펀드(Private Equity Fund)를 조성하거나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하기도 함.
 - 또한 아랍의 봄 이후 교육, 보건의료,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투자 증가, 신도시, 교통, 물류와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추진, 2020년 두바이 엑스포 및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유치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.

- 유럽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수출신용기관(ECA: Export Credit Agency)과 다자개발은행(MDB: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)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.
 -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유럽계 은행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, 유럽 은행의 중동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참여도가 낮아졌음.
 - 반면 미국과 유럽 대형 은행의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IFC(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) 등과 같은 MDB와 한국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ECA의 직접대출 및 보증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.

나. 해외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

- IFC는 1956년 설립된 세계은행 그룹의 한 기관으로서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을 설립 목표로 삼고 있음.
 - IFC는 MIGA(Multination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)와 함께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금융 및 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IBRD(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), IDA(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) 등 주로 대정부 지원을 하는 세계은행 그룹의 다른 기관

들과 구분됨.

- IFC가 전략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은 먼저 소득이 낮아 IDA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가, 분쟁이 심각한 국가 및 신흥 중소득 국가 등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임.
- IFC가 주도적 역할을 한 요르단의 쿤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내 최초의 공항부문 민관 협력사업(PPP) 프로젝트로 IFC가 장기 대출에 참여하였음.
 - IFC가 본 프로젝트의 금융주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적 위험이 경감되었고, 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졌음.
 - 요르단 정부는 PPP 방식을 통해 공항에 대한 소유권도 유지하면서 공항으로부터의 재정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었음.
 - 또한 지분 투자자 중에서 AdPM으로부터는 공항 운영 및 관리부문, J&P로부터는 건설부문에서의 전문성을 각각 활용함으로써 민관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음.
- 이슬람개발은행(IDB)은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.
 - IDB 그룹은 설립 이후 2014년 7월까지 누적된 금융 지원 규모의 절반 이상을 터키를 포함한 중동·북아프리카(MENA) 지역에 투입하였음.
 - IDB는 회원국별로 맞춤형 개발 금융 지원을 위해 회원국 파트너십 전략(MCPS: Member Country Partnership Strategy)을 수립하고 있음.
 - 안정적인 자금조달 재원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 효과성 제고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중동 산유국들의 개발펀드와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음.
- 이슬람개발은행의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DP 월드(World)와 지부티 정부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음.
 - 이슬람개발은행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, 두바이 이슬람 은행 등 다양한 은행들이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대출에 참여하였음.
 - 이 프로젝트는 IDB, AfDB 등 다자 개발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협조 용자 방식으로 조달되었음.
 - 특히 세계은행 그룹의 하나인 MIGA는 10년 동안 전쟁, 내전, 몰수,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위험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음.

- 일본국제협력은행(JBIC)은 일본 정부가 전액 출자(자본금 1조 3,910억 엔)한 정책금융기관으로 2012년 설립되었으며, 그 전신은 1950년 설립된 일본수출은행으로 수출신용기관(ECA)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 - JBIC의 업무를 세분하여 보면, 해외자원 개발 및 취득,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, 지구온난화 관련 해외환경사업의 촉진, 국제금융질서로부터의 보호 등 4개 부문임.
 -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,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고 있으며, 중견·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음.
 -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기본 전략으로서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, 지분투자,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.

-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이 1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, 차입금 중 1/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.
 - 특히 한국과 일본의 EPC 업체와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.
 - 또한 이슬람 금융기관이 8억 5,000만 달러의 용자를 제공하여 차입금의 11.8%를 조달하였음. 이는 중동지역에서의 이슬람 금융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서 이슬람 금융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함

다. 중동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주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음.
 -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, UAE,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이 4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 - 제조업부문에서는 전체 투자진출 금액 대비 1.5%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-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, 주로 해외 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있음.
 - 지난 3~4년 동안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, 중동자금 활용 확대, 사모펀드 설립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음.
 - 그러나 아직도 전문인력 부족, 시중 상업은행의 참여 한계, 펀드 활용도 미흡,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.

3. 정책 제언: 한·중동 금융협력 방안

가. 한·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

- 한·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,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사례, 국내 진출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동지역의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임.
 - 이때 중동지역은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산유국뿐만 아니라 자원이 부족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비산유국도 포함됨.
 - 비산유국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까지 고려한 제3국 공동 진출이라는 형태로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
- 이러한 금융협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금융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음.
 - 실물부문에서도 국내 민간부문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전문인력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임
 - 반면 중동 국가들은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은 채 산업다각화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협력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.
- 인프라 개발 등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협력이 필요한 배경은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 규모와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임.
 - 즉 다양한 채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협조 융자(co-financing) 또는 혼합 금융(mixed financing)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위험요인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위험 공유(risk sharing)를 통해 경감시켜야 하기 때문임.
 - 이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수출금융이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만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.
- 또한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저소득국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 위험(country risk)에 대한 경감 방안이 필요함.
 - 예를 들어 내란, 폭동, 국유화, 몰수, 환거래 제한 등 정치적 위험(political risk)을 줄일 수 있어야 함.
 - 이때 다자간 국제개발은행이나 여러 나라의 수출신용기관 또는 현지 금융기관을 금융협력 패키지

에 참여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.

- **한·중동 금융협력은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함.**
 - 최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, 중소기업이 해외에 플랜트를 건설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조달 능력이 필요함.
- **앞서 제시한 정책 비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실천과제의 도출과 실천과제간 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.**
- **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 역량(capability)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**
 - 현재 국내 금융기관중에서는 글로벌 금융역량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,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므로 이 기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 역량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
 - 반면 민간 금융기관들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경험, 네트워크 등이 크게 부족한데,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.
 - 전반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금융이나 지역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됨은 물론 금융 및 지역 전문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.
- **둘째, 민간부문이 투자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금융조달이 어렵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 진출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·중동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.**
 - 이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
 - 현지에서 발주되는 민관협력사업이나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투자 진출사업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, 현지의 산업 및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의 공급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.
- **셋째, GCC 국가 이외의 중동,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.**
 - 이는 GCC 국가들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여 신흥경제국의 ‘개발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.

- 국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회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·제도적 토대(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)를 마련해주고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.

나. 주요 정책 방안

1) 글로벌 금융협력 역량 강화

- 글로벌 금융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.
 - 해외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와 방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OECD의 협약에 구속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, 즉 수출과 연계되지 않는 대출 상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. 예를 들어 해외 M&A 사업에 대한 파이낸싱 자금이나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등 중장기 대출상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함.
 - 대규모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협조 용자 주선 기능을 강화해야 함. 이를 위해서는 국가위험 평가, 시장 및 경쟁환경 분석, 사업 타당성 분석 등에 기초하여 원리금상환능력(bankability)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설계 능력과 협조 용자(co-financing)에 따른 대주단 구성 능력을 배양해야 함.
 - 다자 개발금융기관, 해외 수출신용기관,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상업은행, 사업주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함. 이는 향후 국내 투자개발기업의 금융조달전략(financing strategy)을 함께 수립하고 국내 금융자문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.
 - 전체 대출규모 대비 지분 투자 비중을 더욱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, 이는 국내 상업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에서의 공적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임.
 -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금융기관과 수출입은행 간 전대 한도의 상향 조정,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 매입 강화,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제공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국내 상업은행은 해외투자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금융자문사로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.
 - 국내 상업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수출신용기관과 연계하여 국산 콘텐츠 조달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 - 국산 콘텐츠 조달에 따른 부가가치 규모를 고려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마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보증 또는 보험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음.
 - 국가 위험과 프로젝트 위험의 경감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간 협조 용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

해볼 수 있음.

- 국내 금융기관 내에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외국 전문가를 영입하여 국제금융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신속하게 학습하고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함.
-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외화자금 조달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●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업무 이외에도 입찰, 계약, 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향후 전문인력의 수급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함.

- 현재 금융인력에 대한 교육은 주로 한국금융연수원,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, 해외건설인력에 대한 교육은 해외건설협회, 플랜트산업협회 등에서 실행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분야별로 교육과정이 분산되어서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움.
- 해외 현장에서의 인턴십 등을 통한 실무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.
- 금융부문을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, 프로젝트 관리, 법률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통합되어야 함.
-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금융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한 자금조달원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음.

2) 한·중동 금융 네트워크 구축

● 국내 금융기관들이 중동 현지에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면서 단계적으로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.

-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략적으로 글로벌 파트너링을 통해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.
- 이는 현지 은행과의 합작 또는 제3은행의 공동 인수, 특정한 부문에서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리스크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, 현지 은행간, 현지 감독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용이함.

● 해외 진출 초기에는 현지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여 현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소매 영업활동을 벌이기가 곤란하므로 도매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.

- 초기에는 글로벌은행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중소·중견기업 대상의 기업금융이나 중소형 플랜트 건설 등과 관련된 중소형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.

- 이때 일본이나 유럽의 수출신용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이자율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.
 - 또한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채권을 인수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.
- GCC 투자시장은 선진적인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이 선점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 진입하는 데 필요한 제도 이해 및 정보 취득이 필요함.
 - 정부 관료를 포함하여 중동지역의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정책, 정치적 상황, 법률 및 제도 등의 변화, 인프라 구축 계획이나 프로젝트 발주 정보 등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함.
 - 특히 현지 은행과의 제휴는 현지 관습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정치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.
 - 이러한 제휴 또는 협력 기관들과 투자 서밋(investment summit)이나 투자 포럼 등을 개최하게 되면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.
 - 자원개발, 교통·물류 등 공공인프라, 발전·담수 플랜트, 중소기업, 서비스업(환경, 보건의료, 교육 등) 등 부문별 모델 구축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투자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
 - 부문별 모델은 투자자 모집에 제한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합한 투자 방식을 고안해낼 수 있음.
 - 투자 분야의 특성에 따라 정책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 정책의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고, 사업발굴이나 자원조달, 국산 콘텐츠 연계, 운영 등에 관련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음.

3) 신흥경제국 투자사업 공동 진출

- 민관협력사업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험과 법적,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면 신흥경제국에서의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 - 국내 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위험 경감을 위해 국내 KOICA 또는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임.
-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조달 규모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촉매 또는 앵커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함.

- 다자 개발금융기관은 국제상업은행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신디케이션 구성을 용이하게 하므로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다자 개발금융기관들과 국가 및 사업 위험, 사업 타당성, 지원정책, 규모, 금융조달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.
- 다자 개발금융기관은 신흥국의 개발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많은 신흥국 정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개최하면서 많은 프로젝트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동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
● ODA 자금을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자금과 연계하여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이때의 ODA 자금은 컨설팅 사업이나 공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민간 부문 중심의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와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.
- 국내외 정책금융기관, 개발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처, 건설기업 등이 민관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성공사례, 향후 발주계획,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.